

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상덕이와 오래 통화(47분)

막걸리 마시면서

마음이 통하는 녀석이라 대화가 잘된다

늦게라도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디

고맙다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상덕이와 통화

상덕이가 카톡에 관해 묻는다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고

선생님이라 불러야 알려준다고 해도 안된다

아가라고 부른다

고연놈이다

용통성이 전혀 없는 대나무 맞구나

고연놈이다

유석이 엄마가 듣고선 40년간 옆에서 사느라 고생했다고 하소연

맞습니다 맞아요

고연놈입니다요

재미있는 시간이구나

남무호 반재철의 매일 통화가 부러웠는데

70이 다되어서야 그런 친구를 만났구나

고마운 친구

그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웃으며 살자구나.